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일시· 장소 : 2017. 3. 29(수) 09:00~15:30 / 서울 코엑스 아셈홀 201호

2. 주최기관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3. 참 가 자 : 총 73명, 명단 별첨

- 한국측 : 안종원 체어맨(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등 36명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회장) 등 37명

4. 회의주제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사항의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

- **세션1 :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 **세션2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교류· IT ~

5. 회의 개최결과

□ **한일 양국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한일경제인회의 100주년을 다음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문제해결형 전문가 회의로서 기능**

□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제시**

①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한일관계 방향 모색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정세 급변에 공동대응

②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을 통한 한일협력 강화

-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교류, IT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 **주요 제언내용**

① 한일 FTA 체결 공감대 형성 및 원인분석· 해법 모색

- 필요성· 절박함 공유, 경제분야 국한 협상, 현실적 목표설정 필요

② 지구적· 인류적 과제인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공동협력

- 글로벌리즘 규범(민주주의, 시장원리, 과학기술)이 비슷한 한일이 협력

③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에 공동대응

- 한일공동연구 8대프로젝트 제언(일자리변화, 인공지능· 로봇개발 등)

④ IT 활용에 의한 한일 인적교류 편리성 향상

- 휴대폰방식 교통카드 공통화로 관광산업과 전자결제 산업이 활성화

⑤ 인재육성· 인재교류 강화

- 기업현장인재 육성(인턴실습), 한일고교생교류(대지진피해지, 올림픽개최지)

⑥ 양국간 관광산업 활성화

- 양국 국민에 한해 사전입국 심사제도 등을 실시하여 입국심사 시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

6. 세부 내용

□ **한일 FTA에 관해 논의하기 좋은 시점이 도래, 한일 FTA 체결의 공감대 형성 및 체결이 안된 원인분석· 해법 모색을 제언**

o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균형적인 성과 확인이 필요
- FTA의 필요성· 절박함이 전제조건, 경제분야에만 국한하여 협상, 높은 수준이 아닌 현실적 목표설정이 필요

o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한일 FTA체결 등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을 해소**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해결에 있어 아시아의 리더국가인 한일이 손잡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됨을 제언**

o 글로벌리즘 규범(민주주의, 시장원리, 과학기술)이 비슷한 한일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을 공유
- 한중 FTA보다 한일 FTA를 우선 체결했어야 함

□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일자리창출, 미래 일자리변화 등에 대처하여 8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제언**

o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에 공동대응**
- 한일공동연구 8대 프로젝트 제언
  ①4차산업혁명의 미래 공동연구 ②미래 일자리의 변화 공동연구
  ③인공지능개발과 활용 공동연구 ④클라우드 로봇의 공동연구
  ⑤빅데이터와 IoT활용 공동연구
  ⑥PBL(Project Based Learning) 공동연구
  ⑦온라인 공개수업(MOOC)과 거꾸로 학습(Flip Learning) 공동연구
  ⑧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공동연구

□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한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을 제언**

o **IT 활용에 의한 한일 인적교류 편리성 향상**
- 휴대폰방식 교통카드 공통화로 관광산업과 전자결제 산업이 활성화

o **인재육성· 인재교류 강화**
- 기업현장인재육성(인턴실습), FTA 추진으로 인적· 물적교류 확대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지속개최 필요(日 대지진피해지, 韓 올림픽개최지)

7. 개회인사 요지

■ 안종원 (安宗原) 한국측 체어맨

- 세계경제의 정황 상 그 어느때보다도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한일관계개선에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는 바로 **정치영역과 경제, 문화, 안보영역을 분리**하는 것임
- 일본은 내수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일찌감치 강한 해외진출 의지를 가지고 시장을 개척해 온 한국기업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반면 수출중심의 한국은 내수시장에서부터 착실히 기술력과 경쟁력을 쌓아나가 서비스 이노베이션을 선도한 일본의 경험을 배워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등, 양국은 서로 배울 수 있는 상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최근 양국 기업의 공통 관심사는 **고령화사회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임. 협력과 상생을 통해 수요 축소와 인력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더불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전략이 필요함
- 이번 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의한 기술변화에의 공동 대응방안 등 한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변화속에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회의가 양국 경제인들의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의견교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창조하고 이 에너지가 양국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기대함

□ 아소 유타카 (麻生 泰) 일본측 체어맨

- 작년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였으나, 올 해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및 한국경제에의 영향, 한일관계의 심각한 냉각 등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정반대의 기분으로 신년을 맞이하였음
- 정치적으로 냉각된 상황이기에 전체적인 한일관계에 역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 경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모국을 위해, 양국 관계를 위해 실적을 낼 수 있는 움직임, 비즈니스를 해야 함
- 한일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경제· 인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를 심화하고 우호관계를 강화한다고 생각함
- 가일층의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일한경제협회· 일한재단은 카운터 파트인 한일경제협회· 한일재단과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갈 것임

■ 이수철 (李洙喆) 코디네이터

- 한일 양국간 수출입규모 및 투자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 한일관계는 아무래도 정치에 민감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듬
- 18년 전 신산업무역회의를 참가하고 코디네이터도 맡고 있는데, 18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주요이슈 및 논의내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 그만큼 한일의 관계가 발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듬
- 지금 한중일 FTA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들을 보면 당장은 어려워보이니, **한일간 FTA라도 먼저 체결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됨

□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코디네이터

- 현재 한일 정치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양국 국민의 냉랭한 시선이 경제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됨
- 일본어에 착실히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의미로‘ 세 걸음 나아가고 두 걸음 되돌아간다’ 고 하는 말이 있음. 지금은 두 걸음 되돌아 간 상황이니 세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한일관계를 재확인**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서석숭 (徐錫崇)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두 분 체어맨님 및 코디네이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일 양국간의 창구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음
- 한일관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은 1,000년 전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좋아하건 갈등이 있건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 만이 정답임**
-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는 선배세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발전된 모습의**‘ 한일경제인회의 100주년’ 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는 것**임
- 한일 경제협력의 창구를 맡고 있는 양국 협회와 재단, 그리고 저와 고레나가 전무님이 더욱 긴장하여 옷깃을 새로이 여며야 한다는 다짐을 거듭 되새기며 오늘의 회의에 임하고자 함

□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2016년도는 한일 양국 협회와 재단이 모든 사업을 예정대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덕분임
-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한일 양국 협회와 재단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함

8. 주요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

□ 제1세션 :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일협력

■ 정 인 교 (鄭 仁 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한일의 대응」

1. 세계 무역구조 변화와 특성
 -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 장기 저성장
 - 세계경제기조는 보호무역과 교역위축, 저성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선진국의 대중국 협력관계가 중국 견제로 변경되면서, 경쟁적 보호주의 특성을 보임

2. 신보호무역주의 추이와 주요배경
 - 거래품목대비 무역장벽 품목 비중이 급등하는 추세로,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보호무역조치를 급증시켜 나가고 있음
 - 신보호무역주의 주요 배경은 세계 상품분야 수급구조의 변화, 중국의 국가주도 전략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 리쇼어링, 포퓰리즘을 들 수 있으며, 신고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

3. 보호무역주의 대응
 - 향후 몇 년간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제통상환경이 전개될 것임. 미중간의 통상마찰에 의한 글로벌 환경 악화로 세계경제성장의 부진과 경쟁적 보호주의로 기업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대외환경변화의 대응방안으로 WTO 분쟁조정기구의 확충과 보호무역주의 시정을 위한 WTO/OECD 작업반의 신설,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 강화, 공급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 **한일 FTA체결 등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현안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

□ 후지야마 도모히코 (藤山 知彦) 국립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펠로
「SDGs와 Someone First – 한일의 입장 」

1. **지구적, 인류적과제인 SDGs의 문제해결에 한일 양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세계화 규범을 약화시키는 자국 우선주의와 한일 양국의 입장 등에 대한 설명

2.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 목표
 - 전 지구적 문제인 빈곤과 기아의 종식과 사회발전, 환경지속성, 경제성장,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주제로 한 17개 목표 설정

3. 리먼 쇼크 후의 세계경제 변화와 세계화에 비동조하는 문화권의 존재 등으로 글로벌리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글로벌리즘 달성을 위한 주요과제인 시장주의, 민주주의, 과학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와 현상에 대해 설명

-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관계,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관계, 시장주의와 과학기술의 관계, 팔마비율과 인간개발지수의 관계

※ 팔마비율 :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을 비교(중산층을 제외한 비교가 더 정확)

□ 1세션 질의응답 내용

o 한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는가?

- 산업·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은 협력할 분야가 많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향후 우려되는 중국문제 심화는 경제통상관계를 중심으로 양국이 같은 목소리, 같은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상호 Win-Win을 기대

- 최근 TPP가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한일 FTA 추진 여건이 조성**

o 한일 FTA가 왜 체결되지 않고 있는지? 그 분석과 해결이 필요

- 한일 양국의 **경제문제만 국한**하여 협상한다면 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한일 관계는 경제 외적 제3의 요소 즉 정치, 외교 등 감정적 문제가 작용되어 협상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일 양국간 산업구조가 첫 논의 당시의 수직적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수평적관계로 전환되면서 기대수준이 높아져 협상이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이 한일 FTA 체결이 **필요함을 느껴서 절박**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경제 부문에 국한**해서 논의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함. 세 번째는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아서는 성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타결이 아닌 조금 **제한적인 부분에서 목표**를 잡고 간다면 성공가능성 높아질 것임

- 또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산업과 경제적 논리와 통상 규범적 논리 등의 합리적 프로세스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타결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리즘규범이 비슷한 국가간 FTA 체결의 선행이 필요하며, 대국적인 관점에서 한일이 먼저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

- 한일 FTA타결을 위해서는 양국의 메리트 격차 해소가 중요하며, 타결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찾아야 할 것임

- 한일 FTA 체결은 양국 정상간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지금 한일간 산업 구조 등은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음. 이 시점에서 중진들이 한일 FTA를 위한 불씨를 잘 당겨준다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임. **한일 FTA를 재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의 논의가 기대됨

o 한일 FTA보다 한중일 FTA 논의가 우선되었던 이유

-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한국은 EU 및 미국과 FTA가 타결되었고 이어서 한중 FTA까지 타결되면 동북아질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상호 인식하에, 한중 FTA와 함께 한중일 FTA를 논의

o 기타 한일경제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세계경제, 무역환경의 변화가 한일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음. 글로벌리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협력하여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3국 공동진출 등)

- 미국발 리먼쇼크 이후, 한일 양국의 산업계· 경제계는 제3국에서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음.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 구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한일이 협력하여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2세션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교류· IT ~

이 민 화 (李 珉 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변화」

1. 4차 산업혁명시대는 현실(오프라인)과 가상(온라인)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시대로 온□오프라인(O2O)의 벽이 허물어짐
   - 제조업(케터필러, 코마츠)과 유통(아마존) 분야에서의 사례 소개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조성

2.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신규 직업군의 대두)
   - 개인화된 욕구서비스가 신규 일자리의 원천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O2O기술과 다양한 O2O서비스, 개인기업(Gig).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DIY, 사회적기업과 공유경제, 투명 순환 사회를 위한 관리자, 신뢰를 유지하는 거버넌스 직업의 대두

3. 교육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육성
   - 문제중심학습(PBL)과 MOOC(온라인무료공개강좌서비스) 예: 카이스트교육

4. **한□일 공동연구 8대 프로젝트 제안**

   ①4차 산업혁명의 미래 공동 연구 ②미래 일자리의 변화 공동 연구
   ③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공동 연구 ④클라우드 로봇의 공동 연구
   ⑤빅데이터와 IoT활용 공동연구 ⑥PBL(Project Based Learning) 공동연구
   ⑦MOOC와 Flip Learning의 공동연구
   ⑧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공동 연구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관계자 4명

「2016년 일한경제협회 /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보고」

1. 한일 양국간 인재교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인턴실습프로그램) 및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활동 결과 보고
   -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 : 일본계기업, 단체 17개사에 한국학생 36명 현장실습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한일 양국 고교생 각40명씩 80명이 참가, 체험형 경제교육 방식으로 미래 주역인 양국 청소년들의 공동의 해결책 모색을 통해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2. 2016년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던 한일협업 분야로서의 양국 교통수단 연계 강화(한국:T-Money 일본:SUICA/PASMO) 방안 제안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설명

□ **2세션 질의응답 내용**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일협력 방안

- 한일간 협력에서 인재 교류 등은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고, 한일 FTA 부분은 당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으로서, 그 중간 부분이 연구 영역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8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한 것은 의미 있음

- 연구과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크게 보면 연구를 담당하는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 대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

- 4차 산업과 관련 한일공동연구를 위한 재원 틀을 높이고, 한일간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공유의 장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

- 특히, 4차 산업은 새로운 부분이 많음. 이러한 새로운 부분에서의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노력과 논의가 요망됨

o KAIST의 7C 교육체계의 성과

- 2009년부터 KAIST에서 대학생이 아닌 중고학생을 선발, 협력과 창조성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통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하고 발표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계가 실시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크고, 대학 입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러한 성공적 교육 시스템의 효과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모든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이 의무화되게 됨

o 한일협력사업 (인턴십, 청소년교류사업)

- 청소년 관련 상호이해 형태의 교류사업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리뷰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한 연구조사에서 「일본대지진 피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제네시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참가자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류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됨

- 제네시스사업의 효율적 활용을 참고하여, 인턴십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추적 조사를 통해 그 성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임

□ **전체토론 내용**

o 한일 FTA 관련

- 한일 FTA는 2004년 6차 협상 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재협상 환경 조성을 위한 당국자간 협상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경제계의 환경조성이 필요**

- 한일 양국은 현재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일부 경색되어 있으나 경제· 문화·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문제가 잘 해결되면 한일 FTA도 잘 진행될 것이므로 리더십이 중요

- 한일 간에는 감정이 우선되고 있으나,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상호 냉정한 시선과 침착한 판단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

- EU처럼 한일 양국도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를 가지고, 갈등극복을 위한 **한일경제공동체 및 한일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함

o 제4차 산업혁명시대 관련

- 교육문제에 있어서 장기안목을 갖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위 1~2% 대학생들의 4차 산업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중위권 대학에의 기회부여가 중요**

- 1차, 2차, 3차 산업에 종사했던 인력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고령화시대의 복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재교육이 요구됨

- 양국간 경쟁 관계에 있지 않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산학관이 연계한 공동연구개발** 등의 적극적인 의제 발굴이 요망됨

- 잘 사는 한일!, 친구 되는 한일!, 자유로운 한일! 이라는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함. EU의 석탄공동체와 같은 것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하며, 한일이 중심되어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

o 인적교류의 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안

- 한일 양국은 현재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 스럽게 인적교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의 지속이 상대국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함

- 상대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대부분 그 나라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됨. 따라서 **언론보도에 대한 과제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상호이해를 깊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일본측에서는 활발한 인적교류를 위한 제네시스사업을 계속 실시

- 양국 자매도시 등 지자체 **산학관을 연계한 인턴십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 추진**하고, **중위층 학생들이 참여 할 □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수산식품에 대한 뜬소문, 트럼프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선택해서 정보습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

-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한일 양국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방안 기대

- 한일 양국의 경제구조, 산업구조, 기술수준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음. 한일 양국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할 시기가 왔으며, **한일 FTA, 글로벌리즘의 규범 등에 대한 제언**을 기대

- 한일경제인회의가 48회째 단절없이 개최되고 있음. 한일간 정치 문제에도 결코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는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음

- 한일이 단지 가깝다는 이유가 아니라, 한일이 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을 상기

o 기타 건의 사항

- **일본 입국 통관(심사)의 시간 단축**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일본정부는 방일관광객 확대 및 불편해소를 위해 장벽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출발국 사전입국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

- 일본에서는 금년 2월부터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실시되고 있음. 한국에서도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민간 기업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

9. 총괄 및 폐회

□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코디네이터
- 새로운 룰을 한일 양국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와 함께 양국의 입장과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어떻게 하나가 되어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한일 FTA도 그 중 하나의 룰**이라 할 수 있음 - 제3국 공동진출, 고교생교류캠프 등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여러가지 형태의 교류가 전개될 것이며,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였음
■ 이□철 (李洙喆) 코디네이터
- 청소년교류는 잘 되고 있으며 향후 그 규모와 질을 높여 계속 확대 유지해 나가야 하고, 제3국 공동진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함.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으로 한일 양국이 장단점을 비교하여 협력**해 나간다면 새로운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국가가 될 것임 - **한일 FTA는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이든 이제는 추진**해야 할 것으로,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면 이유 불문하고 체결해야함.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현안들이 한일 FTA체결로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한일 FTA가 잘 해결된다면 한국의 청년실업과 일본의 인재확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함

□ 아소 유타카 (麻生 泰) 일본측 체어맨

- 한일 FTA는 국익을 고려했을 때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일본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임. 양국 합계 1억7천만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시 중요함. 한일간 구조도 많이 바뀌었으며 저항요소도 상당 부분 줄었다고 생각함.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한일 FTA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 한일학생 교류는 일본의 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일본학생들의 어학력 향상, 약점을 보완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고 있음. **한일 간 교통카드 호환성이 아직 미진한데 계속 추진**되기를 요망

■ 안종원 (安宗原) 한국측 체어맨

- 본 회의를 시작할 때는 주위의 국제 외교, 정치, 외교 등 한일 관계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역시 18회째 회의를 하다 보니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정리가 되면서 실속있게 액션플랜을 포함한 구체화된 노력이 가일층 돋보인 회의였음
-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큰 틀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향후 우리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사무국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해서 실천 방안에 넣어 발전시켜가야 할 것임
- 한일 동반성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상호협력하고, 실천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구체적 액션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향후 50년에 대한 한일 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
- 경제를 넘어서서 **인재, 문화, 올림픽을 포함한 스포츠교류, 관광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상호 협조 강조**

□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9월의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산업기술페어, 상담회, 한일축제한마당 등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일본측은 전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임
- **민간 주도에 의한 양국 경제·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제3국의 글로벌 전개**를 더 많이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소년교류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
- 금년 3월 7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일한재단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확대 요청함

■ 서석숭 (徐錫崇)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한일 양국은 서로 이사를 갈수 없는 운명의 땅인 만큼 선의의 경쟁을 하고 협력하고 의지해야 함 - 현재 한국기업에게 대일 수출시장의 중요성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전 세계 투자 중에 대일본 투자 비중은 2%에도 못미치고 있음. 그러나 62년부터 SJC가 중심이 된 국내 전체 투자 중 일본은 아직 누적 투자 2위로 400억불이 넘고, 16%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일본측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임 - 제49회째를 맞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00회까지 맞이할 □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한일경제인회의가 너무 거대담론이나 거시경제로 흐르지 않도록 방향이 설정되면, 신산업무역회의는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심지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고, 투명성 있고, 예측 가능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첨부]

1.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일정 1부.
2.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각 1부.
3.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언론 보도자료 1부.
4.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경(사진자료) 1부. 끝.

첨부 1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3.28 (화)	18:30~20:30	**환영리셉션 (COEX Intercontinental Hotel 30F Jupiter Suite)**
3.29 (수)	08:30~09:00 (30) 09:00~09:05 (05) 09:05~09:25 (20) (10) (10)	※ 접수 (COEX Asem Hall 201) 개회 (사회자) 개회인사 ▸안 종 원(安 宗 原) 한국측 체어맨 인사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체어맨 인사
	09:25~10:05 (40) (10) (10) (10) (10)	코디네이터·양국 주최기관 인사 ▸이 수 철(李 洙 喆) 한국측 코디네이터 인사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일본측 코디네이터 인사 ▸서 석 숭(徐 錫 崇)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인사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인사
	10:05~11:20 (75) (20) (20) (35)	**세션(Ⅰ) :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 정 인 교(鄭 仁 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대응 ○ 후지야마 도모히코(藤山 知彦) 국립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펠로 ▸SDGs와 Someone First - 한일의 입장 ○ 1세션 질의응답
	11:30~12:30 (60)	오찬 (COEX 2F ORIOX)
	12:40~13:55 (75) (20) (20) (35)	**세션(Ⅱ)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 제4차 산업혁명·인재육성/교류·IT ~** ○ 이 민 화(李 珉 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4차산업혁명 일자리변화 ○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SJC이사장 겸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인사 ○ 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관계자 4명 ▸2016년 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보고 ○ 2세션 질의응답
	13:55~14:15 (20)	커피브레이크
	14:15~15:10 (55)	자유토론
	15:10~15:30 (20)	양측 코디네이터 총괄 양측 체어맨 총괄 양국 사무국 인사 및 폐회

첨부 2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참가자 (한국측)

所屬機關 가나다 順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Sajo Donga One Group (社)韓國貿易協會	顧 問 副 會 長	安 宗 原 AHN Chong Won	Chairman
2	(株)GH Holdings	會 長	李 洙 喆 LEE Soo Chul	Coordinator
3	(社)韓日經濟協會	副 會 長	徐 錫 崇 SEO Seok Soong	主催機關代表
4	仁荷大學校	對外副總長	鄭 仁 敎 CHEONG In Kyo	1Session 發表
5	創造經濟硏究會	理 事 長	李 珉 和 Lee Min Hwa	2Session 發表
6	慶北大學校	敎 授	徐 正 解 SEO Joung Hae	企業·團體 等
7	慶熙Cyber大學校	敎 授	吳 泰 憲 OH Tae Heon	
8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 表	朴 南 淑 PARK Nam Sook	
9	(株)光星計測器	代 表	林 炳 天 LIM Byung Cheon	
10	(株)光星計測器	次 長	林 程 奎 LIM Jeong-Gyu	
11	東邦企業 Consulting	代 表	成 順 慶 SUNG Soon Kyong	
12	(株)未來經營院	代表理事	許 純 永 HUR Soon Young	
13	培材大學校	敎 授	林 大 永 LIM Dae Young	
14	産業硏究院	硏 究 員	金 洋 膨 KIM Yang Paeng	
15	産業硏究院	硏究委員	司 空 穆 SAKONG Mok	
16	(株)SLK國寶	取 締 役	許 哲 豪 HUH Chul Ho	
17	LG經濟硏究院	硏究委員	金 炯 柱 KIM Hyung Joo	
18	聯合News	Senior記者	李 春 奎 LEE Choon Gyu	
19	宇新(株)	代表理事	金 國 東 KIM Kuk Dong	
20	韓國經濟硏究院	副硏究委員	金 潤 敬 KIM Yun Kyung	
21	韓國企業聯合會	常 務	嚴 致 成 EOM Chi Sung	
22	(株)Hikari情報	會 長	奇 秉 泰 KEE Byeong Tae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23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 務 官	趙 阿 娜 CHO Ah Ra	Observer
24	(社)韓國貿易協會	亞洲室長	金 昇 旭 KIM Seung Wook	事務局
25	(社)韓國貿易協會	次　　長	宋 松 伊 SONG Song Iee	
26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趙 德 卯 CHO Duck Myo	
27	(社)韓日經濟協會	部　　長	金 正 鎬 KIM Jung Ho	
28	(社)韓日經濟協會	課　　長	徐 光 賢 SUH Kwang Hyun	
29	(社)韓日經濟協會	研 究 員	李 裕 卿 LEE You Kyong	
30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Center長	張 震 旭 JANG Jin Wook	
31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　　長	金 德 淵 KIM Deok Yeon	
32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　　長	劉 崇 勳 YOO Sung Hun	
33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Team長	田 在 鎔 JUN Jae Yong	
34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任研究員	深 堀 すずか FUKAHORI Suzuka	
35	同時通譯士		金 惠 媛 KIM Hae Won	
36	同時通譯士		李 定 南 LEE Jeong Nam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참가자 (일본측)

所屬機關 50音順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一社)日韓口濟協會 (株)麻生Cement (一社)九州口濟連合會	副 會 長 會　　長 會　　長	麻 生　泰 Aso Yutaka	Chairman
2	NRI社會情報System(株)	取締役社長	高 田　伸 朗 TAKADA Nobuaki	Coordinator
3	國立研究開發法人 科學技術振興機構 研究開發戰略Center	上　　席 Fellow	藤 山　知 彦 Fujiyama Tomohiko	1Session 發表
4	韓國三菱商事(株) Seoul Japan Club	社　　長 理 事 長	藤 吉　優 行 Fujiyoshi Yuko	2Session 人事
5	(一社)日韓口濟協會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口	專務理事	是 永　和 夫 Korenaga Kazuo	2Session 發表
6	靜岡縣立大學	教　　授	小 針　進 Kohari Susumu	特別參加
7	韓國住友商事(株)	社　　長	矢 野　音 道 Yano Otomichi	企業·團體 等
8	韓國住友商事(株)	口營支援 本 部 長	全　裕　善 Chun Yoo Sun	
9	韓國丸紅(株)	社　　長	廣 江　正 Hiroe Tadashi	
10	韓國丸紅(株)	社　　長	立 川　健 介 Tatsukawa Kensuke	
11	(株)Mizuho銀行 Seoul支店	支 店 長	加 藤　勝 彦 Kato Masahiko	
12	韓國三井物産(株)	社　　長	三 木　篤 行 Miki Atsuyuki	
13	韓國三井物産(株)	業務管理 本 部 長	李　在　鎔 Lee Jae Yong	
14	韓國三井物産(株)	口營企畵 本 部 長	手 島　純 子 Teshima Junko	
15	(株)三菱東京UFJ銀行 Seoul支店	支 店 長	池 內　克 年 Ikeuchi Katsutoshi	
16	韓國三菱商事(株)	本 部 長	原　　浩 朗 Hara Hiroaki	
17	韓國三菱商事(株)	次　　長	河 內　俊 夫 Kochi Toshio	
18	韓國三菱商事(株)	社　　員	金　누　리 KIM Nu Ri	
19	三菱商事(株)	社　　員	池 澤　健太郎 Ikezawa Kentaro	
20	日本貿易振興機構 Seoul事務所	所　　長	保 科　聰 宏 Hoshina Toshihiro	
21	日本貿易振興機構 Seoul事務所	副 所 長	柴 谷　昌 宏 Shibatani Masahiro	
22	日本商工會議所 Seoul事務所	所　　長	關 口　正 俊 Sekiguchi Masatoshi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23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企業·團體 等
24	韓國日研株式會社	社　　長	若 井　修 二 Wakai Shuji	
25	(株)Intelligence Korea	課　　長	松 木　康 輔 Matsuki Kosuke	
26	駐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口濟公使	羽 鳥　　隆 Hatori Takashi	
27	駐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參 事 官	有 馬　伸 明 Arima Nobuaki	
28	外務省 Asia大洋州局 北東Asia課 日韓口濟室	室　　長	大 野　　祥 Ono Sho	
29	口濟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國室	書 記 官	中 岡　廣 治 Nakaoka　Koji	
30	(一社)日韓口濟協會	常務理事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事務局
31	(一社)日韓口濟協會	常務理事	千吉良 泰 三 Chigira Taizo	
32	(一社)日韓口濟協會	總務部長	伊 藤　美千代 Ito Michiyo	
33	(一社)日韓口濟協會	課　　長	金　侑　貞 Kim Yu Jung	
34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口	常務理事	木 村　愼一郎 Kimura Shinichiro	
35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口	部　　長	須 藤　　俊 Sudo Shun	
36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口	次　　長	杉 原　　景 Sugihara Kei	
37	(株)日刊工業Communications	社　　員	河 原　啓 太 Kawahara　Keita	

첨부 3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언론 보도자료

매일경제 MBN

* 지면, **3/30(목) A18면** 기업

韓日신산업무역회의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모여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외교적 갈등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경쟁적 보호주의로 기업 환경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 부총장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공급과잉 산업 공동 구조조정 같은 한일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욱 기자

ChosunBiz

* 지면, **3/30(목)** 조선일보 경제 **B2**면

"韓·日 FTA 맺어 보호무역 파도에 맞서야"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주장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29일 열린 '제18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 FTA 체결 등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통상 현안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FTA 협상이 부진한 데다, 일본이 심혈을 기울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탈퇴로 동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FTA를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일본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데다, 우리가 기계나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보다 경쟁력이 약해 양자 간 FTA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 부총장은 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호주의 무역 환경에 대응하려면 다자간 협상 진전을 위한 농복아 협력 강화, 공급 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을 안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에 원만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송원형 기자

munhwa.com
문화일보 * 지면, 3/29(□) 17면 경제

"韓·日 FTA 체결해 보호무역주의 돌파해야"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공동연구 필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려면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한국과 일본이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개최됐다. 매년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 회의는 산업·무역·투자 등 경제협력과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올해에는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아소 유타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등 전문가 80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과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인재육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 모두 가시화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 역시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글로벌 경제가 향후 몇 년간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쟁적 보호주의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강화, 공급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 한·일FTA 체결 등 한일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일간에 미래 일자리의 변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클라우드 로봇,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활용 등에 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 측 의장인 안종원 부회장은 "오는 9월 26일~27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전자신문

* 지면, 3/30(목) 25면 인물

제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 그룹 고문·왼쪽 세 번째), 아소유타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네 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보호무역·4차 산업혁명 대응 '韓日 경제협력' 강화 모색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과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삼양홀딩스 회장)가 공동 개최했다.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 속 한일협력 △새로운 분야 도전:제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 그룹 고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큐슈경제연합회 회장·아소시멘트 회장)을 비롯해 전문가 80명이 참여했다.

양국 경제전문가들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26, 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 한일 FTA 추진 등 협력강화로 보호무역주의 돌파해야”

입력 2017.03.29 (14:16) | 수정 2017.03.29 (14:20) 인터넷 뉴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인들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확산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는 29일(오늘) 오전 코엑스에서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양국 경제 전문가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글로벌 경제가 향후 몇 년간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쟁적 보호주의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해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강화, 공급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 한일FTA 체결 등 한일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현안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측 의장인 안종원 부회장은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9월 26-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 한일경제협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29일 한국무역협회· 한일경제협회 공동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경쟁적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다자협상 진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협력 강화, 공급과잉 공동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한일 FTA 체결 등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산업무역회의는 양국 간 산업· 무역· 투자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아래 한일 협력 관계를 주로 논의했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을 안고 있다"며 "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나온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26~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n@yna.co.kr

보호무역· 4차산업혁명 한일 공동 대응 모색

정욱 기자 / 입력 : 2017.03.29. 14:31:18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경제 외교를 통해 극복해나가자."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모여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외교적 갈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8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 일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 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향후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경쟁적 보호주의로 기업환경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 부총장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공급과잉 산업 공동 구조조정 등 한일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 일간 일자리 변화, 인공지능(AI) 개발, 로봇, 빅데이터와 IoT활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개최되는 한· 일 경제인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을 준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한국측 의장인 안종원 부회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9월 26일과 27일 서울서 열리는 한· 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무협, 제 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일 FTA 추진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로 보호무역주의 돌파

▲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 그룹 고문· 왼쪽 세번째)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개최된 ‘ 제 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아소유타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가운데) 등 한일 양국의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한일경제협회(회장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공동으로 ‘ 제 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그룹 고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큐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회장)을 비롯해 전문가 80명이 참여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글로벌 경제가 향후 몇 년간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쟁적 보호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해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강화, 공급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한일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현안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한일간에 미래 일자리의 변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클라우드 로봇,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활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측 의장인 안종원 부회장은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26일과 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BBS NEWS

"보호무역주의, 한· 일 FTA 체결로 돌파“
무역협회· 한일경제협회, 양국 간 산업· 무역· 투자 등의 협력 방안 모색

한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오늘 한국무역협회· 한일경제협회 공동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경쟁적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다자협상 진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협력 강화, 공급과잉 공동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한일 FTA 체결 등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산업무역회의는 양국 간 산업· 무역· 투자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아래 한일 협력 관계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26~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시사오늘

무역협회, '한일신산업' 경협 방안 논의
"美 보호무역주의 대응 위해 한일FTA 체결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29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 그룹 고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큐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회장)을 비롯해 전문가 80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 대외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해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강화, 공급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 한일FTA 체결 등 한일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현안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한일 간 미래 일자리의 변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클라우드 로봇, 빅데이터와 IoT활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측 의장인 안종원 부회장은 “ 오는 9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다.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해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무역협회,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최종수정 2017.03.29 06:00 기사입력 2017.03.29. 06:00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29일 개최됐다.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큐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회장)을 비롯해 전문가 80명이 참여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새로운 분야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측 의장인 안종원 부회장은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돌아오는 9월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
대한민국 경제의 힘
www.ekn.kr

안종원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 의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양국간 협력 강화 성명 곧 발표“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2017.03.29 21:46:44

▲안종원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 의장 (사진제공=무역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한일 FTA 추진 등 한일경제협력 강화로 보호 무역주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안종원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 의장(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는 29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 제 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

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 그룹 고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큐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회장)을 비롯해 전문가 80명이 참여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 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글로벌 경제가 향후 몇 년간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쟁적 보호주의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해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강화, 공급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 한일FTA 체결 등 한일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현안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일간에 미래 일자리의 변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클라우드 로봇, 빅데이터와 IoT활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종원 한국측 의장은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9월 26-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한일 기업인들, 머리 맞대고 경제협력 방안 모색

안종원(왼쪽 세번째)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그룹 고문)과 아소 유타가(왼쪽 네번째)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등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일 양국의 경제 전문가가 모여 경제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 행사는 양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큐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회장)을 비롯해 전문가 80명이 참여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 글로벌 경제가 향후 몇 년간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쟁적 보호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해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강화, 공급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 한일FTA 체결 등 한일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현안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008040)(1,635원 10 -0.61%) 그룹 고문)은 “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 오는 9월 26-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 그룹 고문)이 29일 서울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조세금융신문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신문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한일 FTA 필요성 제기
무역협회-한일경제협회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

신경철 기자 goshinkc@tfnews.co.kr / 등록 2017.03.29. 11:06:3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29일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경쟁적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다자협상 진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협력 강화, 공급과잉 공동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한일 FTA 체결 등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아래 한일 협력 관계를 주로 논의했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을 안고 있다"며 "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그룹 고문)은 “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 9월 26-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 불확실 속 경제협력 강화해야"...
한일 경제전문가 '한 목소리'
한국무역협회-한일경제협회, 29일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한일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다.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 그룹 고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큐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회장)을 비롯해 전문가 80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선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 모두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을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만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글로벌 경제가 향후 몇 년간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쟁적 보호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강화와 공급과잉 산업의 공동 구조조정, 한일FTA 체결 등 한일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현안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일 간 미래 일자리의 변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클라우드 로봇, 빅데이터와 IoT활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9월 26~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될 계획이다.

송은세 기자 ses22@focus.kr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연합뉴스)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3.29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으로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안종원 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이 개회사하고 있다. 2017.3.29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으로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개회사하고 있다. 2017.3.29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안종원 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및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7.3.29

jin90@yna.co.kr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안종원 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및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7.3.29

jin90@yna.co.kr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의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안종원 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및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7.3.29

jin90@yna.co.kr

첨부 4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경

<Reception 전경>

<한일경제협회 서석숭 신임 부회장을 소개하는 안종원 체어맨>

<본 회의 전경>

<회의 대표 기념사진>

왼쪽부터 조아라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수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안종원 한국측 체어맨, 아소 일본측 체어맨, 다카다 일본측 코디네이터, 고레나가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후지요시 SJC이사장, 하토리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개회인사하는 안종원 한국측 체어맨>

<개회인사하는 아소 유타카 일본측 체어맨>

<제1세션 :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제1세션 : 후지야마 도모히코
국립과학기술진흥기구 상석펠로>

<제1세션 질의응답 ①
: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제1세션 질의응답 ②
: 하토리 다카시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제2세션 :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제2세션 : 일한경제협회 관계자 4명>

<제2세션 질의응답 ①
: 서정해 경북대학교 교수>

<제2세션 질의응답 ②
: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자유토론 ①
: 임대영 배재대학교 교수>

<자유토론 ②
: 조아라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